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상승선 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5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5

上昇線

상모택

이승선



5-5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5 제5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2~26] 김기홍, 관곡팔경, 작자 미상, 유산가, 이덕수, 강거소루기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인사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추석이라는 명절과는 무관한, 어쩌면 평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냈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추석이라는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3이 쉬지 않으면 강사도 쉬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추석은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아마 명절이든 연휴든 만끽하고 있겠지요.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힘든 것 다 알지만, 지금부터는 그냥 머리 비우고 버티는 겁니다.

이번 주 역시 수필 복합입니다. 단, 고전시가 수필 복합이에요. 이 세트는 풀다 보면 깨닫는 사실인데, 24번을 제외하고는 결국 수필을 해결해야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주제라기보다는, 수필이 주제인 세트입니다. 수필이 꽤 재미있죠. 옛날에도 한강변이 최고였군요. 혹시 이런 말을 아시나요. '인생은 한강 아니면 한강뷰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옛날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부럽더라고요. 작가가. 한강변에 작은 정자를 소유하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것 역시, 해설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전시가는 굳이 〈보기〉부터 보지 않긴 하는데, 〈보기〉부터 읽든, 지문부터 읽든 그것은 본인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가) 작품이 생소할 것이므로 27번 〈보기〉는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4번 〈보기〉는 먼저 볼 필요가 굳이 없죠. 유산가가 EBS 연계인데. 이미 공부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

> (가)의 화자는 소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변방 지역에 정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척박한 환경과 곤궁한 형편으로 인해 외물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다수의 사람이 선망하는 한강 주변의 누정을 향유하는 삶에서 촉발된 사유를 확장하여, 외물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한다.

이왕 읽은 김에 수필까지 읽게 됩니다. 차이가 선명하네요.

(가) 외물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현실이 안타까움

(다) 외물에 대해 초연한 태도(~~크렇겠지... 한강변에 사는데...부러워서 꼬인 게 아닙니다~~)

바로 (가) 작품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뚫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이요.

(가)

관곡(寬谷) 넓은 뜰이 북해(北海)를 버여 이셔
천지(天地) 삼긴 후에 몇 사람 다녀간고
이제 와 복거언(卜居焉) 하니* 백 년 살까 하노라

〈제1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세요. 어려운 한자어에 굳이 집착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관곡팔경이라 했으니 관곡은 지명이겠지요. '관곡'이라는 곳을 천지가 만들어진 후에, 몇 사람이나 다녀갔겠냐는 거죠. 뭐 그만큼 척박한가 봅니다. 이제 살만한 땅으로 점쳤으니, 죽 살아볼까 한대요.

두견화(杜鵑花) 어제 지고 철쭉이 오늘 피니
산중(山中) 번화(繁華)야 이 밖에 또 있을까
행여나 유수(流水)에 흘러 소식 알려질까 하노라

〈제3수〉

두견화가 지고 철쭉이 피고 산중에 번화가 이 밖에 또 없을 거랍니다. 이때 번화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번화가의 '번화'가 맞습니다. 번성하고 화려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 꽃이 피어서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 혼자만 알고 싶은가 봅니다.

적도(赤島)*에 배를 매고 도혈(陶穴)*을 찾아보니
당시(當時) 유적(遺跡)이 완연(完然)도 한뎌이고
우리도 풍패(豐沛)* 적자(赤子)로 몰세 불망* 하리라

〈제5수〉

적도, 도혈 태조인 이성계와 관련된 지명이라고 합니다.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북쪽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아무튼 당시 유적이 잘 남아 있어요. 우리도 조선 왕조의 후예들이니까 세상을 잊어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난도(卵島)에 올라 앉아 창해(蒼海)를 굽어보니
물결이 잔잔한데 넘노나니 백구(白鷗)로다
뉘라셔 네 알을 줍기에 못내 슬퍼하노라

〈제6수〉

이게 중요하죠. 바다를 굽어보니 백구가 날아다녀요. 종장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가 백구 알을 주워가죠. 그걸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보기를 잘 읽었다면 왜 여기에 [B]가 있는지도 이해가 될 겁니다. 미리 얘기하면, 22번 2번 선지, 26번 1번 선지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딱 이 만큼은 합시다.

- 김기홍, 「관곡팔경」 -

(나) 작품 갑니다. 이미 연계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아예 현대어 풀이를 드리겠습니다.

(나)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 들어가니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 년 일도(一度) 다시 피어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奇花瑤草) 난만(爛漫)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봄이 오자 성안에 꽃이 만발하여 화려하고, 따뜻한 봄날에 만물은 한창 기를 펴고 자라난다.
때가 좋구나. 벗님들아 산천경치를 구경 가세.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표주박 하나를 들고 천리강산 들어가니
온 산에 가득한 붉은 꽃과 푸른 초목은 일 년에 한 번씩 다시 피어
봄빛을 자랑하느라 색색이 붉어 있는데,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은 화려한 가운데,
꽃 속에서 자던 나비는 자취 없이 날아든다.

(중략)

원산 첩첩 태산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솰솰
열의 열 골 물이 한데로 합수(合水)하여
천방져 지방져 소쿠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箕山) 영수(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一年豊)이라
일출 낙조가 눈앞에 벌였으니 경개 무궁(景槪無窮)이 좋을시고

먼 산은 겹겹으로 펼쳐지고, 높은 산은 멈칫하듯 우뚝 솟아 있는데, 기이한 바위는 층층이 쌓이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축 늘어진다.
가지가 휘어져 거센 바람에 흥을 이기지 못하고 우쭐우쭐 춤을 춘다.
층층인 바위 절벽 위에 폭포수는 수정 발을 드리워 놓은 듯
이 골짜기의 물이 주루루룩, 저 골짜기의 물이 솰솰 소리 내며,
열 골짜기의 물이 한 곳에 합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솟구쳤다가 내려앉아 편편하게 흐르며,
넝쿨과 같은 긴 물줄기를 이루기도 하고, 물방울을 이루기도 하며, 저 건너 병풍처럼 둘러친 석벽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하얗게 물보라를 이루며 흩어지니,
소부와 허유가 서로 묻고 답하던, 기산 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두견새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요, 소쩍새는 한 해의 풍년이라
일출과 저녁에 지는 햇빛(낙조)가 눈앞에 벌여져 있으니, 경치가 무궁히 좋을시고.

– 작자 미상, 「유산가」 –

* 소부, 허유 : 중국 요순시대에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인물들.
* 주곡제금 : 두견새.
* 적다정조 : 소쩍새.

(다) 수필도 바로 끝내고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겠습니다. 읽기 전에 까먹지 맙시다. 이 수필은 구구절절 떠들어봤자 외면에 대한 초연한 태도에 대한 수필입니다.

(다)

대저 한강의 승경은 우리나라의 으뜸이다. 강을 끼고 들어선 정자가 벌집처럼 새도 무서워할 벼랑에 붙어 있거나 달팽이 집처럼 물가 언덕에 늘어서 있다. 많기가 이와 같은데 화려한 편액과 멋지게 세운 건물의 그림자가 강물에 거꾸로 비쳐 아래위로 일렁이는 것은 공자(公子)와 왕손(王孫)이 아니면 돈 많은 호족의 것이다. 집을 지을 만한 남은 땅이 아예 없는데 이 땅을 이 사람이 감상하게 한다면 칠십 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도 사양하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니 그렇게 되지 않고 감춰진 채 숨어 드러나지 않다가 특별히 내가 얻은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도 또한 운수가 있었던 것이다.

역시 한강뷰가 최고지요. 공자나 왕손, 호족들의 차지여야 하는 한강뷰를 자신이 운 좋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한강변에 정자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로 인해 다시금 느낌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사물 중에 장구한 세월에도 변치 않는 것은 없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것 또한 만들어진다. 때문에 옛사람은 달관하여 얻고 잃음을 같게 보았다. 사생의 변화는 밤낮 내 앞에서 서로 엇갈리니 뜬구름이 태허에서 일어났다 사라져도 그 안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하물며 하잘것없는 정사(亭舍)이겠는가?

역시 이런 걸 소유하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변치 않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것은 결국 허물어지게 되고, 허물어진 것은 또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얻으면 잃고, 잃으면 얻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잘것 없는 사소한 정자는 다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연한 태도를 사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야흐로 내가 이 정자에서 강산의 맑고 툭 트인 것과 구름의 변화하는 자태를 두루 살펴보면서 난간에 기대 하품하고 기지개 켜며 한바탕 웃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니 애초부터 자족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 어느 겨를에 이를 즐기지 않고 정자가 일백 년 뒤에 폐하여질지 흥하게 될지를 근심하겠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변하는 건데, 이 정자가 없어질지 계속 흥할지를 근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략)

다만 이치만이 우주를 다하고 고금을 아울러 조금도 변치 않는 것이다. 천지보다 먼저여서 시작이 없고 천지보다 나중인지라 끝도 없다. 성인이란 내 성품 안에 이치가 갖추어져서 성품을 벗어난 이치란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내 몸을 밝게 하여 내 처음 모습을 되찾아 만세에 참여하여 한결같이 순수함을 이룬다. 이 같은 사람은 어디서든 오묘한 작용을 이루어 굽히고 폄이 자신에게 있게 되니 얻었다 하여 이름 지을 수도 없고 그 다함을 알지도 못한다. 크고 작은 것을 보고도 오히려 크고 작음을 나누지 않는 자는 빠르고 더딤에도 애초에 이 같은 분별이 없게 된다. 저들은 또 돼지우리 같은 거처를 왕궁처럼 생각하고, 천 년을 한순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또 어찌 거처의 화려하고 누추함과 무너지고 일어나는 연유를 따지겠는가?

수필 독해력. 결국 밑줄 친 저 말이 실전에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 독해력은 갈립니다. 누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 이건 다 읽어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네요. 바로 '이치'입니다.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는 것은 성품 안에 이치가 갖추어진 사람이죠. 즉 내 성품이 곧 이치라는 거고, 이거 사실 성리학의 기본이죠? '성즉리' 이 얘깁니다. 내 성품 안에 이치가 있으니까 성품을 잘 갈고 닦아라, 뭐 이런 동양철학인데, 저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바랍니다. 다 변한다. 단 '이치'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 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치를 품고 사는 성인 같은 사람은 돼지우리 같은 거처를 왕궁처럼 생각하고, 천 년을 한 순간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초연한 태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죠.

– 이덕수, 「강거소루기(江居小樓記)」 –

22.

범위를 정해주었으니 왔다갔다 정확하게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① [A]는 대상을 한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달라진 심리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 네. 화자의 달라진 심리 상태는 없습니다. 심리 변화는 아무래도 선명하죠.

② [B]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백구의 알을 털어가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니까,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③ [C]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C]가 회고적일 수가 있나요. 사실 유산가 자체가 회고적 분위기와는 너무 동떨어진 작품입니다. 맥락.

④ [D]는 행위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 자연을 살펴보면서, 난간에 기대 하품하고, 기지개 켜며, 한바탕 웃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했으니, 행위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도 맞고, 만족감도 맞습니다.

⑤ [E]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심미적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

- 설의는 있죠. 심미적 성질과는 관계가 없어서 그렇죠.

23.

선지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① ㉠은 새로운 거처를 정한 상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내린 현재의 결정을 중시하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 이거는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와 복거언하니 백년 살까 하노라.'를 보고 새로운 거처를 정한 것도 알겠고, 현재의 결정도 알겠는데, 이걸 중시하는 것까지는... 이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백년 살까 하는 것 자체가 이 결정을 중시하는 건 맞다고 하면 알겠는데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실전에서는 넘기는 거죠.

⑤ ㉤은 특정 계기를 통해 상념이 촉발되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을 부각한다.

- 바로 쳐버려야 됩니다. 맥락. 내지는 수필의 주제죠. 글쓴이는 초연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초연함 ≠ 회의감.

24.

유산가 연계 공부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좋은 것은 발췌독 시, 지문을 뭉개는 사람을 변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서 차분히 읽고, 정확하게 따져줘야 합니다. 선지 세 개만 보겠습니다.

②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에서는, 대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어 ~~자연물과 인간이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 지문 돌아가서 정확히 읽습니다. 뭉개면 뭉개지는 겁니다.

> 원산 첩첩 태산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2번 선지가 맞으려면, 우줄우줄 춤을 추는 게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인간이 신나서 춤추고 있어야 맞는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춤을 추는 건 장송입니다. 즉 자연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지 자연물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④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에서는,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관념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어요.

- 상당히 중요한 선지죠. 기산 영수 예 아니냐, 무릉도원 예 아니냐 이런 표현은 사대부들이 자연에서 정말 신나고 기분 좋을 때 쓰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다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미치기 직전에 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무릉도원, 기산 영수, 무릉, 기산 등은 이상적 공간, 내지는 관념적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이 작품에서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⑤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에서는, 현학적인 표현이 포함된 한문 투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발화자의 의도를 보여 주고 있어요.

- 〈보기〉 잘 읽으면 거슬리지 않는 선지입니다. 다만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 반면 고사나 현학적 표현이 포함된 한문 투는 발화자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연을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관념적 태도를 부각합니다.

굳이 두견새나 소쩍새를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한 현학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25.

답의 선명도. 가장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고르긴 고를 듯한데, 어떻게 고르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교훈은 수필 독해력 = 답의 선명도. 우리가 수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읽어야 하는 내용을 읽어내야 답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선지 딱 세 개만 보겠습니다.

③ '사생의 변화'를 '뜬구름'의 생성과 소멸에 빗대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강조한다.

- 보고 당연히 발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내가 이로 인해 다시금 느낌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사물 중에 장구한 세월에도 변치 않는 것은 없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것 또한 만들어진다. 때문에 옛사람은 달관하여 얻고 잃음을 같게 보았다. 사생의 변화는 밤낮 내 앞에서 서로 엇갈리니 뜬구름이 태허에서 일어났다 사라져도 그 안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하물며 하잘것없는 정사(亭舍)이겠는가?

밑줄 친 부분이 근거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생의 변화, 즉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변화. 뜬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짐. 즉 둘이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앞부분은 맞는 듯합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일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선명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번 선지의 선명도는 이 부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문을 읽을 때 들어왔어야 하는 내용에 따라 선명도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치만이 우주를 다하고 고금을 아울러 조금도 변치 않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 = 이치. 지문을 읽었을 때 변하지 않는 것 = 이치 이게 머리에 박혀 있으면, 우리가 선지를 판단할 때, 돌아가서 확인 후, 그래 이치가 있다고? 하고 그냥 3번 선지를 찍게 됩니다. 이게 수필 독해력입니다. 물론 이게 들어오지 않아도 답은 고를 수 있겠지요. 다만 선명도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④ '화려'한 모습에 휘둘리기보다는 '누추함'에 의미를 두고 이를 추구하는 자를 '성인'으로 간주한다.

- 그럴듯해서도 안 됩니다. 성인은 화려하든 누추하든 신경쓰지 않습니다. 즉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역시 수필의 주제를 묻는 것이지요. 출제자는 중요한 것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⑤ '무너지고 일어나는 연유'를 헤아려 보는 행위는 '순수함을 이룬'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문 돌아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무너지고 일어나는 행위를 따지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애초에 헤아려 보는 행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② '작은 동그라미를 바라보라'에는 '발목 아래'에 생겨난 현상이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는 매개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서 우산을 같이 쓰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환기됩니다.

26.

역시 중요한 것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사실 이 세트 자체가 계속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통일성 있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④ (가)는 '백 년 살까'라고 한 데서 한곳에 정착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다)는 '얻고 잃음을 같게 보았'다는 '옛사람'의 말을 떠올리는 데서 외물이 주는 흥취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며 그와 거리를 두려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 네. 초연한 태도와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건 다른 겁니다. 초연함 ≠ 무의미한 것으로 여김. 다르죠. 결국 정리해보면 23번 문제 5번 선지, 25번 문제 4번, 5번 선지, 26번 문제 4번 선지 모두 초연한 태도로 털립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상 이승선

상모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